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회복세를 보임.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의 경우 미국(3.5%)과 유로지역(1.4%)은 전분기대비 상승(미국 2.1%p, 유로지역 0.2%p)하였으나, 일본(1.3%)과 중국(1.8%)은 소폭 하락(일본 0.5%p, 중국 0.1%p)함.
 - 미국은 민간투자자와 수출, 유로지역은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일본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 감소, 그리고 중국은 고정 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4%p 하락한 0.8%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중국 등 신흥국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을 기록함.
 -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3.1%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 및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일본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개선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는 미약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은 일본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경제는 민간투자과 수출 개선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2016년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연율) 성장함(〈표 5〉 참조).
- 유로지역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4%(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19〉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3%(연율)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가 둔화됨(〈표 1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수출부진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8%를 기록함(〈표 10〉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¹⁾	3.4	3.2	n.a.						
선진국 ¹⁾	1.9	2.1	2.3		1.6		1.5		n.a.
신흥국 ¹⁾	4.6	4.0	4.3		4.2		4.3		n.a.
미국 ²⁾	2.4	2.6	2.0	2.6	2.0	0.9	0.8	1.4	3.5
유로지역 ³⁾	1.1	2.0	3.2	1.5	1.3	2.0	2.0	1.2	1.4
일본 ⁴⁾	0.0	0.5	6.3	-0.5	0.8	-1.8	2.8	1.8	1.3
중국 ⁵⁾	7.3	6.9	1.6	1.9	1.7	1.6	1.2	1.9	1.8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12).

3) Eurostat(2017. 1).

4) 일본 내각부(2016. 12).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10).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중국 등 신흥국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99.1과 100.2를 기록함.
- 일본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99.6으로 집계됨.
- 중국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98.8을 나타내며 전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함.²⁾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²⁾	100.2	99.7	100.0	99.9	99.6	99.4	99.3	99.5	99.7
선진국 ³⁾	100.5	100.2	100.5	100.3	100.1	99.9	99.7	99.7	99.8
미국	100.8	100.1	100.6	100.3	99.9	99.4	99.2	99.1	99.1
유로지역	100.3	100.4	100.3	100.4	100.4	100.4	100.4	100.2	100.2
일본	100.6	100.2	100.3	100.4	100.3	100.0	99.8	99.7	99.6
중국	100.5	99.4	99.8	99.7	99.3	98.9	98.6	98.5	98.8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4%p 하락한 0.8%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2%,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0.2%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2) 국제금융센터(2016. 11. 10), “국제금융속보” 참고.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2.7	2.0	3.2	1.9	1.6	1.3	0.8	1.2	0.8
선진국	2.7	2.8	3.7	3.2	2.4	1.7	1.4	1.0	1.2
신흥국	2.6	0.9	2.2	0.1	0.5	0.8	-0.1	1.3	0.2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3.1%를 기록하였고, 국제 유가는 하락한 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상승한 1.6%를,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보다 하락한 4.5%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5.8%, 6.2% 하락한 42.8, 44.8이고, CRB 상품지수³⁾는 0.4% 상승한 184.1을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5		2016				2015		2016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3.2	2.6	2.8	3.0	3.1	두바이 현물지수	50.1	38.7	31.1	45.5	42.8
선진국	1.4	0.6	0.8	1.0	1.6	WTI 현물지수	49.3	41.8	35.2	47.8	44.8
신흥국	4.7	4.6	4.8	4.8	4.5	CRB 상품지수 ²⁾	208.1	186.9	165.9	183.4	184.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 10); 한국은행; Bloomberg.

3)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6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를 기록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민간투자는 기저효과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며 3.0% 성장하였고 수출은 전분기대비 10% 증가함.

- 2016년 3/4분기 미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소폭 하락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됨.
 - 비농업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19만 7,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9%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1.4%)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미국의 국채금리(3년물 0.84%, 10년물 1.56%)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감소한 3.0%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설비투자 개선이 지속되고 주택투자 증가율도 반등하면서 전분기대비 10.9%p 상승한 3.0%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8.2%p 상승한 10.0%를 나타내며 크게 상승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2.5%p 상승한 0.8%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2.4	2.6	2.0	2.6	2.0	0.9	0.8	1.4	3.5
민간소비	2.9	3.2	2.4	2.9	2.7	2.3	1.6	4.3	3.0
재화	3.9	4.0	2.7	4.3	4.2	2.1	1.2	7.1	3.5
서비스	2.3	2.8	2.3	2.2	2.0	2.3	1.9	3.0	2.7
민간투자	4.5	5.0	9.9	1.0	2.0	-2.3	-3.3	-7.9	3.0
설비	6.0	2.1	1.3	1.6	3.9	-3.3	-3.4	1.0	1.4
주택	3.5	11.7	13.3	14.9	12.6	11.5	7.8	-7.7	-4.1
수출	4.3	0.1	-5.8	2.9	-2.8	-2.7	-0.7	1.8	10.0
수입	4.4	4.6	5.6	2.9	1.1	0.7	-0.6	0.2	2.2
정부지출	-0.9	1.8	2.6	3.2	1.9	1.0	1.6	-1.7	0.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9%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5.9p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지수는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하락한 -1.3%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1.6% 상승한 191.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4.1	2.3	-0.7	1.5	1.0	0.2	-0.0	1.5	0.9	0.6	0.1
소비자신뢰지수 ²⁾	86.9	98.0	101.4	96.2	98.3	96.2	96.0	94.8	100.7	100.8	109.4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7.8	10.7	-6.7	17.2	0.0	-1.8	1.5	0.7	-1.3	27.4	-18.7
주택가격지수 ⁴⁾	170.7	179.3	173.7	178.8	182.2	182.5	183.2	188.3	191.3	191.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⁴⁾는 소폭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0.5%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75.5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하락한 51.2를 나타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124.3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감.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0.3	-0.5	-0.7	0.4	-0.8	-0.4	-0.2	0.5	0.1	-0.4
설비가동률 ²⁾	77.6	77.5	77.7	76.6	76.6	75.8	75.4	75.2	75.5	75.4	75.0
ISM제조업PMI	55.6	51.3	53.2	52.6	51.0	48.6	49.8	51.8	51.2	51.9	53.2
경기선행지수 ³⁾	117.2	122.2	120.6	122.2	122.7	123.4	123.0	123.6	124.3	124.6	124.6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⁵⁾〉

- 2016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됨.
 - 비농업취업자는 63만 6,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9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5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8,000명 감소함.
 - 실업률은 4.9%로 3분기 연속 유지함.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5)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1%를 나타내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동일수준인 2.2%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4%를 나타내었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3%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¹⁾	6.2	5.3	5.6	5.4	5.2	5.0	4.9	4.9	4.9	4.9	4.6
포괄적 실업률(u-6) ²⁾	12.0	10.5	11.1	10.7	10.2	9.9	9.8	9.7	9.7	9.5	9.3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301.5	274.4	57.0	75.2	57.6	84.6	58.7	43.9	63.6	14.2	17.8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30.8	27.8	28.8	27.8	27.3	27.2	26.9	26.7	25.9	25.8	25.2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6	0.1	-0.1	0.0	0.1	0.5	1.1	1.0	1.1	1.6	1.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8	1.8	1.7	1.8	1.8	2.0	2.2	2.2	2.2	2.1	2.1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9	-3.3	-3.2	-3.3	-3.3	-3.3	-1.8	-1.9	-1.4	0.6	0.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9	2.0	1.9	2.1	2.2	1.8	1.6	1.5	1.3	1.6	1.7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Fed)의 9월 기준금리 동결 발표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7bp 하락한 0.84%,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한 1.56%임.
- 그러나 2016년 말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임.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0.88	1.01	0.96	0.96	1.01	1.13	1.03	0.91	0.84	0.98	1.22
국채 10년물	2.53	2.13	1.97	2.15	2.21	2.18	1.92	1.74	1.56	1.75	2.1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2/4분기보다 0.1%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임.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5%)과 소비자신뢰지수(105.7)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가 개선됨.
 -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와 동일한 6.1%p를 유지하였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0.2)는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0.8%)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중국의 국채금리(3년물 2.86%, 10년물 3.24%)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수출감소세 지속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8%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1.6%p 하락한 8.1%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감소한 -6.9%를 나타내며 수출 감소가 지속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5%p 증가한 -4.3%를 나타내며 감소세가 둔화됨.

〈표 10〉 중국의 지출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¹⁾	7.3	6.8	1.6 (7.0)	1.9 (7.0)	1.7 (6.9)	1.6 (6.8)	1.2 (6.7)	1.9 (6.7)	1.8 (6.7)
고정자산투자 ²⁾	16.8	11.4	13.7	11.6	10.8	10.1	10.5	9.7	8.1
수출 ³⁾	5.5	-1.1	9.9	-2.8	-6.3	-5.2	-11.8	-6.3	-6.9
수입 ³⁾	0.9	-14.2	-17.6	-13.3	-14.1	-11.6	-13.5	-6.8	-4.3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가 개선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10.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4.5p 상승한 105.7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0	10.6	10.2	10.2	10.7	11.1	10.5	10.2	10.5	10.0	10.8
소비자신뢰지수	104.4	105.9	107.5	107.7	104.7	103.9	102.8	101.2	105.7	107.2	108.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2를 나타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2	6.0	5.6	6.3	5.9	5.9	6.8	6.1	6.1	6.1	6.2
제조업PMI ²⁾	50.7	49.9	49.9	50.2	49.8	49.7	49.5	50.1	50.2	51.2	51.7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⁶⁾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7%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한 -0.8%를 기록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4	1.2	1.4	1.7	1.5	2.1	2.1	1.7	2.1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5.2	-4.6	-4.7	-5.7	-5.9	-4.8	-2.9	-0.8	1.2	3.3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 재부각, 실물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8bp 하락한 2.86%, 국채 10년물 금리는 44bp 하락한 3.24%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재부각,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2/4분기보다 2.0% 상승한 6,667위안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2.61	3.28	3.48	3.20	3.05	3.39	3.90	3.34	2.86	3.03	3.16
국채 10년물	3.90	3.50	3.52	3.48	3.51	3.52	3.83	3.68	3.24	3.22	3.39
위안/달러	6,162	6,284	6,236	6,204	6,302	6,392	6,539	6,533	6,667	6,729	6,846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6년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3%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1.4%)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1.0%)과 소비자신뢰지수(42.1)는 동반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을 보임.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7.1%)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7.3%)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실업률(3.0%)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1.37배)은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일본의 국제금리(3년물 -0.24%, 10년물 -0.12%)는 유럽중앙은행(ECB) 및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발표, 그리고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3%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2.6%를 나타냄.
 - 주택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전분기대비 1.8%p 감소한 -0.4%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5%p 하락한 0.1%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9%p 상승한 1.6%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하였으나 -0.4%를 기록,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4%p 상승한 0.3%를 나타냄.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0.3	1.2	1.5 (6.3)	-0.1 (-0.5)	0.2 (0.8)	-0.4 (-1.8)	0.7 (2.8)	0.5 (1.8)	0.3 (1.3)
민간소비	-0.9	-0.4	0.6	-0.4	0.5	-0.7	0.4	0.2	0.3
설비투자	-4.3	-1.6	3.1	1.2	1.8	-1.2	1.3	3.5	2.6
주택투자	5.2	1.2	1.2	-1.3	0.6	0.4	-0.3	1.4	-0.4
공공투자	0.7	-2.2	-2.0	1.0	-0.5	-2.8	-0.7	1.6	0.1
수출	9.3	8.3	1.6	-3.7	2.1	-0.6	0.8	-1.3	1.6
수입	3.0	0.1	0.3	-2.5	2.5	-0.9	-1.2	-0.9	-0.4
정부지출	0.5	1.6	0.9	0.1	0.4	0.7	1.3	-1.1	0.3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12).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4%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동반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42.1로 집계됨.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2.2%p 높아진 7.1%를 기록함.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5%p 상승하며 7.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1	-1.2	1.1	-1.3	-1.0	0.0	-1.0	0.2	1.4	0.0	1.5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4	-1.6	0.1	1.1	-0.2	-2.3	0.1	1.0	2.5	0.2
소비자신뢰지수 ³⁾	39.3	41.3	40.6	41.5	41.0	42.2	41.4	41.2	42.1	42.3	40.9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9.0	1.9	-5.4	7.6	6.2	-0.7	5.5	4.9	7.1	13.1	6.7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0	4.1	4.1	3.0	-6.5	2.6	6.7	-9.2	7.3	4.1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⁷⁾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감소한 3.0%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37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짐.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0.5%를 나타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3.6	3.4	3.5	3.4	3.4	3.3	3.2	3.2	3.0	3.0	3.1
유효구인배율 ¹⁾ (배)	1.09	1.20	1.15	1.18	1.22	1.25	1.29	1.36	1.37	1.40	1.41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7	0.8	2.3	0.5	0.1	0.3	0.0	-0.4	-0.5	0.1	0.5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9	1.0	2.1	0.5	0.8	0.8	0.6	0.5	0.2	0.2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과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발표, 그리고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유사한 -0.24%,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0.12%임.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0.08	0.02	0.02	0.01	0.02	0.01	-0.13	-0.24	-0.24	-0.25	-0.18
국채 10년물	0.55	0.36	0.34	0.40	0.39	0.31	0.07	-0.11	-0.12	-0.06	-0.0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참고: 장기금리목표제

- 일본중앙은행(BOJ)은 2016년 9월 21일 「장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with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도입함.⁸⁾
 - 일본의 통화정책이 기존 통화량 목표에서 금리 목표제로 전환됨.
- 정책의 핵심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현재 수준인 0.0%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이인 수익률 곡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임.
 - 정책금리인 당좌계정 금리를 -0.10%로 유지하면서 단기금리는 -0.10%,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0.00%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함.
 - 이와 함께 자산매입 조건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안정적으로 상회할 때까지 유지”로 명시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 지속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추가옵션으로 자산매입 확대, 본원통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함.

8) 일본중앙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라. 유로지역⁹⁾경제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04.3)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산업생산 증가율(0.4%)은 2/4분기대비 상승함.
 - 주요국 실업률(6.3%)의 경우 북유럽 국가(6.7%)는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동유럽 6.8%, 남유럽 16.3%)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모든 유럽 국가(북유럽 1.5%, 동유럽 -0.2%, 남유럽 0.1%)에서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유로 주요국 국제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감.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분기보다 각각 0.3%p, 0.2%p 상승한 0.2%, 0.3%를 나타낸 반면, 독일, 스페인, 영국은 전분기대비 각각 0.2%p, 0.1%p, 0.2%p 하락한 0.2%, 0.7%, 0.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3%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0.2%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0.1%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0.2%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증가한 0.5%를 기록함.

9)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1.2	2.0	0.8 (3.2)	0.4 (1.5)	0.3 (1.3)	0.5 (2.0)	0.5 (2.0)	0.3 (1.2)	0.3 (1.4)
민간소비	0.8	1.8	0.5	0.5	0.4	0.4	0.7	0.2	0.3
고정자본투자	1.4	3.2	1.8	0.0	0.7	1.3	0.4	1.2	0.2
수출	4.5	6.5	2.7	1.1	0.3	0.8	0.2	1.2	0.1
수입	4.9	6.4	2.4	0.8	1.1	1.5	-0.1	1.2	0.2
정부지출	0.6	1.4	0.4	0.4	0.4	0.6	0.6	0.4	0.5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1).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3으로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나타냄.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8.2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0.4%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지역 ESI ²⁾	101.5	104.2	102.5	103.7	104.5	106.2	104.0	104.3	104.3	106.4	106.5
소매판매 증가율 ³⁾ (%)	1.4	2.7	1.0	0.7	0.6	0.2	0.8	0.2	0.4	1.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10.2	-6.2	-6.2	-5.2	-7.0	-6.4	-8.3	-7.8	-8.2	-8.0	-6.2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9	2.0	1.4	0.1	0.4	0.1	0.8	-0.2	0.4	-0.1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⁰⁾〉

- 2016년 3/4분기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3%를 유지하였고, 북유럽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7%를 기록함.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6.8%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6.3%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5%를, 북유럽은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1.5%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0.2%를, 남유럽의 경우도 0.3%p 상승한 0.1%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1/4	6.5	6.7	7.4	17.0	0.2	1.1	-0.7	-0.1
2016년 2/4	6.3	6.6	7.1	16.6	0.1	1.2	-0.7	-0.2
2016년 3/4	6.3	6.7	6.8	16.3	0.5	1.5	-0.2	0.1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

10)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실질 GDP	1.6	1.7	0.2	0.5	0.2	0.4	0.7	0.4	0.2
	민간소비	0.9	2.0	0.4	0.4	0.6	0.4	0.6	0.2	0.4
	고정자본투자	3.4	1.7	0.5	0.1	0.1	1.6	1.6	-1.6	0.0
	수출	4.1	5.2	1.0	1.6	0.0	-0.7	1.4	1.2	-0.4
	수입	4.0	5.5	1.4	0.4	1.1	0.6	1.5	0.1	0.2
프랑스	실질 GDP	0.6	1.3	0.6	0.0	0.3	0.3	0.6	-0.1	0.2
	민간소비	0.7	1.5	0.5	0.1	0.6	0.0	1.2	0.0	0.1
	고정자본투자	-0.3	1.3	0.5	-0.2	0.9	1.2	1.2	0.0	0.2
	수출	3.3	6.1	1.8	1.6	-0.4	0.5	-0.5	0.1	0.7
	수입	4.7	6.6	2.1	0.3	1.4	2.7	0.4	-1.5	2.5
이탈리아	실질 GDP	0.1	0.7	0.3	0.3	0.1	0.2	0.4	0.1	0.3
	민간소비	0.4	1.5	0.2	0.7	0.6	0.4	0.4	0.2	0.1
	고정자본투자	-3.0	1.3	0.9	0.2	0.4	0.9	0.6	0.0	0.8
	수출	2.9	4.3	1.6	1.2	-1.4	1.5	-1.2	2.1	0.1
	수입	3.3	6.0	3.4	1.3	0.0	1.4	-1.1	1.3	0.7
스페인	실질 GDP	1.4	3.2	1.0	0.8	0.9	0.8	0.8	0.8	0.7
	민간소비	1.6	2.9	0.5	0.9	1.0	0.7	0.8	0.7	0.6
	고정자본투자	3.8	6.0	2.4	2.3	0.7	0.9	0.9	1.1	0.1
	수출	4.2	4.9	1.3	0.9	2.2	0.5	0.5	3.1	-1.3
	수입	6.5	5.6	1.3	1.7	2.3	0.6	0.1	2.0	-1.8
영국	실질 GDP	3.1	2.2	0.3	0.5	0.3	0.7	0.4	0.7	0.5
	민간소비	2.2	2.5	0.8	0.7	0.9	0.4	0.7	0.9	0.6
	고정자본투자	6.7	3.4	1.7	0.9	0.9	-1.3	-0.1	1.6	1.1
	수출	1.5	4.5	2.2	-1.1	-0.3	4.3	0.1	-1.0	0.7
	수입	2.5	5.4	3.4	-1.7	0.5	2.6	0.2	1.3	-1.5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평균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감.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3bp 하락한 -0.66%,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9bp 하락한 -0.07%를 기록함.

- 국채 10년물 금리는 도이체뱅크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하락함.¹¹⁾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1bp 하락한 0.16%,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65bp 하락한 0.72%임.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독일국채 3년물	0.09	-0.20	-0.17	-0.18	-0.18	-0.29	-0.44	-0.53	-0.66	-0.65	-0.64
독일국채 10년물	1.23	0.53	0.35	0.52	0.70	0.56	0.32	0.12	-0.07	0.04	0.24
영국국채 3년물	1.03	0.85	0.72	0.93	0.93	0.80	0.60	0.57	0.16	0.23	0.27
영국국채 10년물	2.51	1.82	1.64	1.86	1.91	1.87	1.56	1.37	0.72	1.04	1.34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1) KDB산업은행(2016. 10), “월간KDB 국제금융”.

2. 국내경제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6%, 전분기대비 0.6% 성장에 그침.
 - 건설투자(11.4%)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민간소비(2.7%)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4.2%) 부진도 심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함.

- 2016년 3/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대내외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4.2%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택투자 활성화로 인해 11.4% 증가함.
 - 산업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광공업 생산 부진(0.6%)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3.6%)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61.1%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6%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8%에 그쳤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5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소폭 상회함.
 - 대외거래의 경우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결함보상 등에 따른 수출 차질에도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5.0%)은 전분기(-6.7%)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고, 수입(-5.2%)도 유가상승 등으로 전분기(-10.2%)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어, 무역수지는 19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였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0.7% 증가함.

- 2016년 3/4분기 경기동향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하였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2016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미국 실행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국내정치상황 급변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됨.

가.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 성장세와 수출 부진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2.6%, 전분기대비 0.6%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¹²⁾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하여 2.7% 증가에 그침 (〈표 24〉 참조).
- 설비투자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운송장비 투자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함 (〈표 25〉 참조).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건설기성 중 건축) 중심으로 11.4% 증가함(〈표 25〉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3.1% 증가함.¹³⁾
-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7% 증가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거주자 국외소비 등을 중심으로 4.9% 증가함.¹⁴⁾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2.8 (0.5)	3.2 (0.8)	2.6 (0.6)
민간소비	1.1	1.7	1.5	1.7	2.2	3.3	2.2	2.2	3.3	2.7
설비투자	4.4	6.0	5.8	5.1	6.7	3.9	5.3	-4.5	-2.7	-4.2
건설투자	-1.7	1.1	0.9	1.0	5.6	7.5	3.9	9.6	10.8	11.4
지식생산물투자	1.7	5.4	2.0	0.9	1.1	2.1	1.5	0.9	2.9	3.1
수출	0.7	2.0	0.5	-0.4	0.5	2.5	0.8	0.7	1.9	2.7
수입	-0.4	1.5	2.1	1.6	3.1	6.1	3.2	1.9	3.3	4.9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2) 정부는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0% 인하(세율: 5% → 3.5%)함.

13)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2. 2), “201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4)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2. 2), “201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정책효과가 약화되며 전년동기대비 3.6% 증가에 그침.
 - 10월과 11월 소매판매는 코리아세일페스타¹⁵⁾ 등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¹⁶⁾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5%, 3.2% 증가에 그침.
 - 내구재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승용차 판매 감소와 신형 스마트폰 결합보상¹⁷⁾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쳐 전분기(11.1%)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8% 증가에 그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도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7%, 1.0% 증가에 그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폭염, 이른 추석¹⁸⁾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0%, 5.0% 증가함.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소매판매	3.4	3.6	6.1	3.9	4.6	6.2	3.6	2.5	3.2
내구재	8.9	7.7	16.1	10.2	5.6	11.1	1.3	0.7	1.8
* 승용차	18.8	17.5	29.8	21.3	8.9	17.0	-9.7	-3.1	0.9
준내구재	-1.3	-3.4	1.5	-1.2	2.7	4.6	3.8	1.7	1.0
비내구재	2.4	4.0	3.0	2.5	4.9	4.2	4.9	4.0	5.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5)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된 대규모 할인행사.

16) 미국 新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국내 국정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30), '16.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22),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0. 11), “새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교환중지·판매중지 권고”.

18) '15. 9. 26~29 → '16. 9. 14~16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¹⁹⁾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 투자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함.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4.2% 하락함.
- 반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 투자²⁰⁾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2% 상승함.²¹⁾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²⁾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쳐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임.

- 10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 및 운송장비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함.²³⁾
- 11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²⁴⁾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설비투자	5.1	6.7	3.9	5.3	-4.5	-2.7	-4.2		
설비투자지수	4.5	10.2	1.6	7.8	-7.1	0.8	-4.9	-4.2	10.2
기계류	3.9	5.3	-7.8	1.9	-12.7	-7.5	0.9	2.4	10.9
운송장비	6.5	22.2	26.5	24.6	9.4	21.0	-16.7	-16.7	8.2
국내기계수주 ³⁾	14.9	-27.1	6.9	1.6	0.9	-2.9	1.2	-11.7	17.1
건설투자	1.0	5.6	7.5	3.9	9.6	10.8	11.4		
건설기성(불변)	-3.8	6.2	8.0	6.3	14.8	19.2	17.1	17.8	25.9
건축	-3.5	10.8	16.3	22.7	22.1	26.5	22.9	24.4	31.5
토목	-4.3	-1.9	-4.5	-14.6	2.0	6.4	5.7	3.6	13.8
국내건설수주(경상)	49.1	50.4	40.1	40.9	13.8	-6.3	2.7	42.9	-9.7
건축	49.3	42.5	37.8	61.0	13.1	2.5	4.2	34.5	4.1
토목	48.3	83.6	45.9	3.2	16.0	-32.8	-2.3	84.0	-47.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9) 국회예산정책처(2016. 10), “NABO 경제동향&이슈”.

20) 반도체 등 IT 업종의 설비 도입 확대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1)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2)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3)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30), “2016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4)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2016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저금리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 지속과 이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택투자 활성화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함.²⁵⁾
 - 건설기성²⁶⁾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함.
 - 10월과 11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7.8%, 25.9%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개선되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10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2.9% 증가함.
 - 한편 11월 국내건설수주는 정부의 주택시장규제²⁷⁾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²⁸⁾ 등의 영향으로 9.7% 감소함.

〈산업생산〉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의 경우 광공업이 수출 부진 및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부진을 이어간 반면, 서비스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2016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에 그침.
 - 10월 광공업 생산은 ICT 부문 생산 감소²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함.
 - 한편 11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종료³⁰⁾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의 영향이 약화되며³¹⁾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로 전환함.

25) 국회예산정책처(2016. 10), “NABO 경제동향&이슈”.

26)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1. 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28) 2016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3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감소함(국회예산정책처(2016. 11), “NABO 경제동향&이슈”).

29) 삼성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2016. 10. 10).

30)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6년 10월 17일 단체교섭 관련 파업을 종료하고 생산을 재개함.

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2016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
 - 한편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6.5%)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운수업(-3.7%) 등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2% 증가에 그침.
 - 11월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 및 보험업(7.2%)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7%)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에 그침.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전산업 생산 ³⁾	1.0	2.1	2.4	1.7	2.3	3.6	3.2	1.9	4.6
광공업	-1.3	-0.1	-0.1	-0.6	-0.2	1.0	0.6	-1.3	4.8
제조업	-1.3	-0.3	0.1	-0.6	-0.4	1.1	0.7	-1.3	5.0
자동차	2.6	4.7	1.4	1.0	-0.2	-3.4	-10.6	-8.2	6.2
ICT	-2.2	2.4	6.6	1.3	-0.2	6.8	8.2	-0.3	6.3
서비스업	2.7	2.9	3.3	2.8	2.8	3.7	3.6	2.2	2.5
도매 및 소매업	0.9	1.4	4.2	1.7	2.8	4.2	2.8	1.6	2.4
운수업	-0.3	0.7	1.1	1.4	2.1	4.2	3.5	-3.7	-0.6
숙박 및 음식점업	-2.8	-3.5	-1.3	-2.0	-0.8	1.9	0.9	-2.3	-3.7
금융 및 보험업	11.4	10.1	6.2	9.0	6.5	4.3	6.5	6.5	7.2
부동산 및 임대업	10.2	11.1	5.9	8.1	3.3	-0.5	4.1	4.1	5.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총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1.1%, 실업률은 3.6%를 기록함.

○ 10월과 11월 총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1.3% 증가함.

- 2016년 3/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구직활동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10월 에도 0.8% 증가하였으나, 11월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39개월 만에 0.5% 감소로 전환됨.³²⁾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61.1%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동일한 비율을 이어감.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4%, 3.1%를 나타냄.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9.3%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8.5%, 8.2%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졌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됨.³²⁾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양호한 기상 여건, 기저효과 등³⁴⁾으로 32개월 만에 2.3%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⁵⁾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4%, 2.1% 감소하며 전반적인 고용 개선세를 제약함.³⁶⁾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개선세³⁷⁾를 이어가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1%, 2.0%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함.

32) 기획재정부(2016. 11. 9), '16.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3) 한국개발연구원(2016. 12. 7), 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34)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5) 제조업 포함.

36) 기획재정부(2016. 11. 9), '16.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7) <표 28> 참조.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¹⁾	1.2	1.2	1.5	1.3	1.1	1.1	1.2	1.1	1.3
청년취업자 ¹⁾	2.3	1.3	2.6	1.8	1.0	2.1	1.5	0.8	-0.5
고용률 ²⁾	60.7	60.9	60.5	60.3	59.1	60.8	61.1	61.1	61.1
실업률 ³⁾	3.8	3.4	3.1	3.6	4.3	3.8	3.6	3.4	3.1
청년 ⁴⁾ 실업률 ³⁾	9.9	8.4	8.0	9.2	11.3	10.3	9.3	8.5	8.2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7	-6.8	-7.6	-7.4	-4.9	-5.7	-5.4	-3.1	2.3
광공업	3.3	3.8	4.2	3.6	3.0	1.0	-1.5	-2.4	-2.1
제조업	3.4	3.8	4.0	3.6	2.9	0.8	-1.6	-2.5	-2.2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5	1.3	1.5	1.4	1.1	1.7	2.3	2.1	2.0
건설업	2.4	0.6	-1.0	1.5	-0.5	-1.5	2.1	3.2	6.0
도·소매, 음식, 숙박	2.2	0.8	-0.6	1.2	-0.9	0.7	1.8	1.9	0.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1	1.7	2.3	0.7	1.5	0.2	0.6	0.1	0.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	1.6	3.1	1.8	2.5	3.4	3.3	2.7	2.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등 공급 측 하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 등과 같은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³⁸⁾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치며 물가 기초를 이어갔으나, 10월과 11월에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1.3%씩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상품물가는 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인하의 영향으로 0.6% 하락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씩 상승함.

- 10월 중 상품물가는 전기요금 한시 인하효과가 소멸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³⁹⁾

38) 한국은행(2016. 1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 "201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11월 중 상품물가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가 이어졌으나 가을 정기세일로 인해 내구재와 가공식품 가격 등이 일시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침.⁴⁰⁾

○ 2016년 3/4분기 서비스물가는 2015년 대중교통 요금인상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1.9% 상승에 그쳤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8%씩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5를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10월에는 101.9, 11월에는 95.8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2.4	101.5	104.3	102.6	99.3	99.8	101.5	101.9	95.8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0.7	1.1	0.7	1.0	0.9	0.8	1.3	1.3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8	-0.9	-0.4	2.0	-0.6	-0.9	-0.6	0.7	0.7
농축수산물	2.1	2.9	2.6	-0.2	4.5	2.0	3.8	8.1	7.9
공업제품	-0.3	-0.2	0.0	-7.4	-0.6	-0.6	-0.3	0.3	0.1
전기·수도·가스	-8.0	-10.8	-7.1	1.8	-8.0	-7.0	-10.2	-8.2	-6.4
서비스	1.6	2.0	2.2	2.5	2.4	2.2	1.9	1.8	1.8
집세	2.4	2.7	2.8	1.2	2.9	2.6	2.5	2.4	2.3
공공서비스	0.5	1.8	2.0	1.9	2.2	2.2	1.0	0.8	0.8
개인서비스	1.9	1.8	2.2	0.0	2.3	2.1	2.2	2.0	2.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1),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6년 3/4분기 수출은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결함보상 등에 따라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이 회복세를 보이며⁴¹⁾ 전년동기대비 5.0% 감소(1,219억 달러)에 그쳤고, 수입이 5.2% 감소(1,024억 달러)하여 무역수지는 19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0.9%)와 경공업제품(5.9%)이 상승한 가운데, 원료 및 연료(-16.0%), 중화학 공업품(-5.0%)의 감소폭이 축소됨.

- 10월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에도 불구하고 3.2% 감소에 그침.⁴²⁾

- 11월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 단가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됨.⁴³⁾

○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증가세(0.5%)를 이어갔으며, 원자재는 유가상승으로 감소폭(-8.8%)이 줄어들었으며, 자본재(12.8%)는 증가율이 상승 전환함.

- 10월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와 자본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

- 11월 수입은 유가상승,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원자재와 자본재가 증가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함.⁴⁴⁾

4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차부품, 컴퓨터 등(산업통상자원부(2016. 10. 1), “2016년 9월 수출입 동향”).

4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1. 1), “2016년 10월 수출입 동향”.

4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2. 1), “2016년 11월 수출입 동향”.

44) 국회예산정책처(2016.12), “NABO 경제동향&이슈”.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	-4.4	-1.3	-2.1	5.0	5.3	10.9	8.8	23.2
	원료 및 연료	-28.2	-33.2	-36.0	-33.3	-31.3	-20.5	-16.0	-3.7	2.4
	경공업 제품	-9.5	-10.0	-8.6	-8.4	-5.5	-0.8	5.9	-4.5	11.6
	중화학 공업품	-4.6	-6.4	-9.8	-4.9	-13.0	-6.1	-5.0	-3.2	1.6
	전체	-7.3	-9.5	-12.0	-8.0	-13.6	-6.7	-5.0	-3.2	2.5
	금액	1,351	1,282	1,300	5,268	1,152	1,260	1,219	420	454
수입	소비재	2.2	-1.8	0.5	2.1	-2.6	3.5	0.5	1.4	10.9
	원자재	-26.5	-32.7	-29.8	-29.6	-25.3	-18.7	-8.8	-6.2	11.1
	자본재	-0.9	3.7	-4.0	1.3	2.6	-22.5	12.8	-5.5	6.2
	전체	-15.6	-18.7	-17.8	-16.9	-16.1	-10.2	-5.2	-4.8	9.3
	금액	1,105	1,080	1,063	4,365	938	993	1,024	350	372
무역수지		246.1	202.8	237.4	902.6	213.8	267.8	195.1	69.6	82.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3/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수입 역시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 전환함.
 - 對일본 수출의 경우 3.6%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對중국·아세안·중남미·중동 등은 감소율이 축소됨.
 - 10월 수출은 對EU·아세안·중동 수출이 증가 전환함.
 - 11월 수출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對중국 수출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EU·중남미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로 전환함.
 -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며 전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전환함.
 - 10월에는 일본, EU, 호주를 제외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됨.
 - 11월에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20.0% 증가하였고, EU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증가함.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중국	26.0	-6.9	-10.5	-5.6	-15.7	-12.7	-8.0	-11.3	0.4
	ASEAN	14.2	-7.1	-10.4	-11.5	-11.2	-1.2	-1.1	2.7	21.9
	미국	13.3	-2.2	-10.0	-0.6	-3.3	-4.3	-8.8	-10.1	3.8
	EU	9.1	-3.6	7.9	-6.9	6.6	-10.0	-8.4	3.8	-22.1
	중남미	5.8	-23.9	-30.9	-14.6	-28.7	-17.1	-11.7	-10.7	-16.0
	중동	5.8	-17.2	-21.9	-12.6	-20.2	-22.2	-15.9	10.2	10.9
	일본	4.9	-26.6	-20.0	-20.5	-13.2	-14.0	3.6	-1.6	12.6
	전체	100.0	-9.5	-12.0	-8.0	-13.6	-6.7	-5.0	-6.7	-5.0
수입	중국	20.7	2.5	-3.8	0.2	-9.5	-3.0	-3.4	-8.1	3.0
	중동	15.7	-46.0	-45.0	-42.5	-42.1	-29.9	-12.7	-2.2	20.0
	동남아	14.5	-12.2	-10.4	-10.8	-8.3	-2.5	0.7	-7.9	10.3
	EU	13.1	-11.0	-9.4	-8.3	-11.6	-10.4	-10.3	4.2	-7.9
	일본	10.5	-18.0	-18.8	-14.7	-11.2	-3.7	11.3	9.5	28.4
	미국	10.1	0.2	-1.4	-2.8	-4.7	-1.5	-6.2	-11.1	11.7
	호주	3.8	-15.2	-20.4	-19.5	-15.3	-17.8	-14.8	5.3	56.7
	전체	100.0	-18.7	-17.8	-16.9	-16.1	-10.2	-5.2	-10.2	-5.2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하락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 결과⁴⁵⁾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5만 원으로 0.7% 증가하였고, 실질 소득은 0.1% 감소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0.7만 원으로 0.7%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2.8만 원으로 0.8% 증가함.

-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71.5%를 나타내며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이어감.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8),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처분가능소득대비 흑자액으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8.5%를 나타냈으나 흑자액이 102.8만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0.7% 증가에 그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9만 원으로 0.7% 증가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0.1% 감소함.
- 추석연휴, 하계올림픽,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오락·문화비, 주거·수도·광열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식료품비 등이 감소함.⁴⁶⁾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27.1	441.6	430.2	437.3	455.5	430.6	444.5
	증가율	2.9	0.7	0.9	1.6	0.8	0.8	0.7
	실질 증가율 ²⁾	2.3	0.0	-0.2	0.9	-0.2	0.0	-0.1
처분가능 소득	금액	348.4	358.2	352.8	356.3	370.4	351.9	360.7
	증가율	3.1	0.9	0.7	1.9	1.0	1.0	0.7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49.4	256.3	255.0	256.3	266.9	249.4	257.9
	증가율	0.7	-0.5	1.7	0.5	0.6	0.0	0.7
	실질 증가율 ²⁾	0.1	-1.2	0.7	-0.2	-0.4	-0.9	-0.1
흑자액	금액	98.9	102.0	97.8	100.0	103.5	102.5	102.8
	증가율	9.6	4.7	-1.9	5.6	1.9	3.6	0.8
평균소비성향 ³⁾		71.6	71.5	72.3	71.9	72.1	70.9	71.5
흑자율 ⁴⁾		28.4	28.5	27.7	28.1	27.9	29.1	28.5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8),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다.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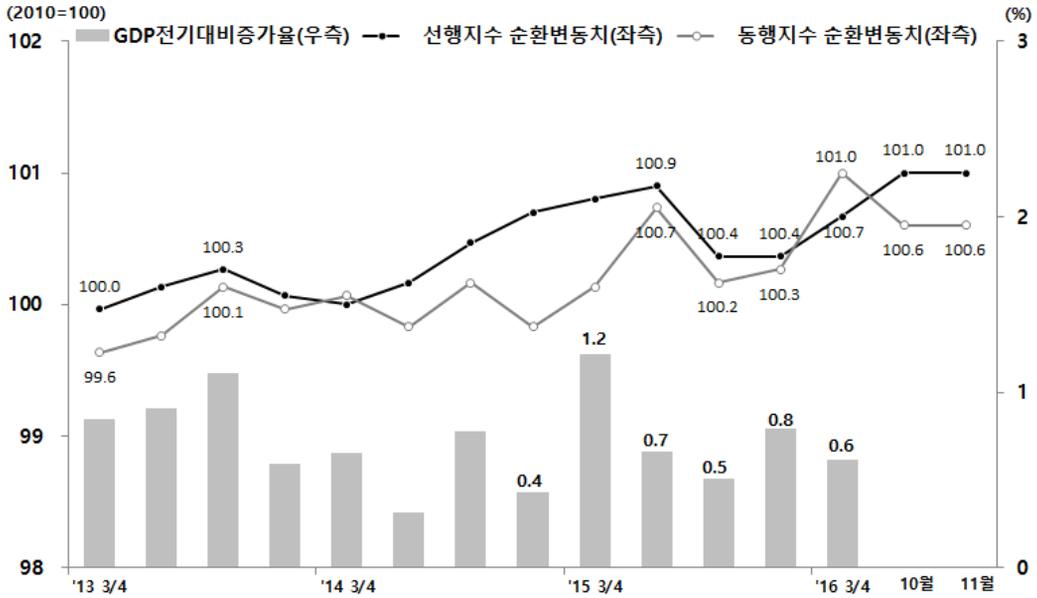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경기동향⁴⁷⁾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⁴⁸⁾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⁴⁹⁾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 전환하며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주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였으나 기계류내수 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 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하여 전월과 동일한 101.0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기성액과 수입액 등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상승 전환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3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과 동일한 100.6을 기록함.

47)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48)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49)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3/4분기 제조업 출하지수와 재고지수가 각각 전분기대비 0.1, 2.4 하락하여 재고율⁵⁰⁾은 2.8%p 하락한 119.6%를 기록함.⁵¹⁾

○ 10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9%p 상승한 119.6%를 나타냄.

- 10월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1차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⁵²⁾

○ 11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4.1%p 하락한 115.5%를 나타냄.

- 11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들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줄어 1.1% 감소함.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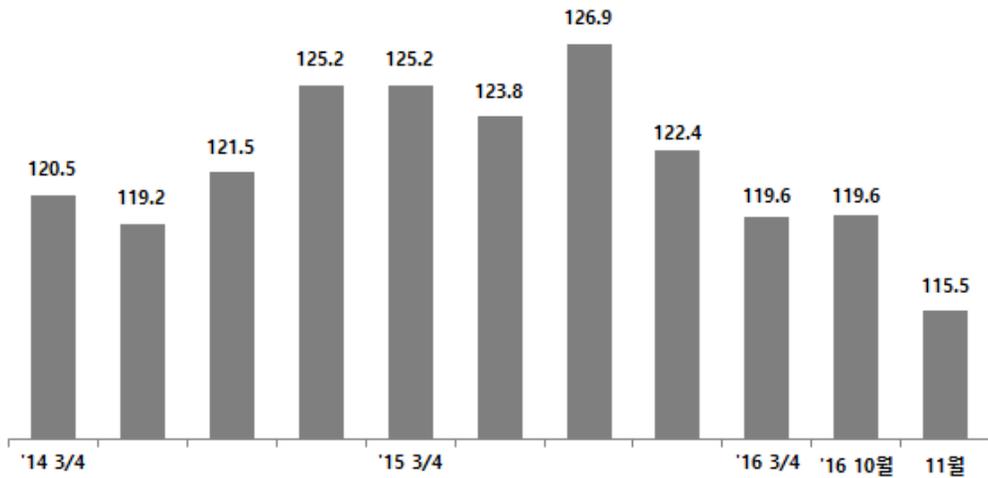
50)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1) 2016년 7월~2016년 11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52)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30), “2016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3)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6년 4/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55%, 1.67%, 1.91%로 2016년 3/4분기(1.26%, 1.29%, 1.44%)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25%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금리상승 기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임.

- 2016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57.4원으로 전분기(1,121.4원)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21.29으로 전분기(2,026.89)대비 하락함.
 - 미국의 금리인상, 우리나라 수출 감소, ECB의 양적완화 기간 연장 등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임.
 - 삼성전자 휴대폰 단종,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약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9,395.66으로 전분기(17,962.42)대비 상승하였으나,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98, 0.81로 전분기(12.10, 0.91)대비 하락함.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KOSPI 보험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주가이익률(PER)은 당기 순이익의 증가로, 주가자산비율(PBR)은 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증가로 하락함.

〈금리〉

- 2016년 4/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6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중국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국내 경제는 고용률 상승, 세계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함.

- 2016년 4/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9bp 상승한 1.44%임(〈표 33〉 참고).
 - 10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5%, 11월과 12월은 각각 1.42%, 1.54%로 매월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평균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각각 1.55%, 1.67%, 1.91%임(〈표 33〉 참고).
 - 10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⁵⁴⁾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승⁵⁵⁾ 등으로 9월 평균 금리(1.31%, 1.35%, 1.51%)보다 상승한 1.36%, 1.41%, 1.60%를 기록함.
 - 11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 평균 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1.61%, 1.74%, 1.97%를 나타냄.
 -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하여 3년 1.69%, 5년 1.87%, 10년 2.16%임.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5 4/4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50	1.25	1.25	1.25	-	-0.25
CD(91일)	1.61	1.65	1.54	1.35	1.44	0.09	-0.17
국고채(3년)	1.70	1.53	1.42	1.26	1.55	0.29	-0.15
국고채(5년)	1.88	1.66	1.51	1.29	1.67	0.38	-0.21
국고채(10년)	2.17	1.90	1.74	1.44	1.91	0.47	-0.26
회사채(3년, AA-)	2.07	2.01	1.88	1.67	1.99	0.32	-0.0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7	0.47	0.46	0.41	0.44	0.03	0.07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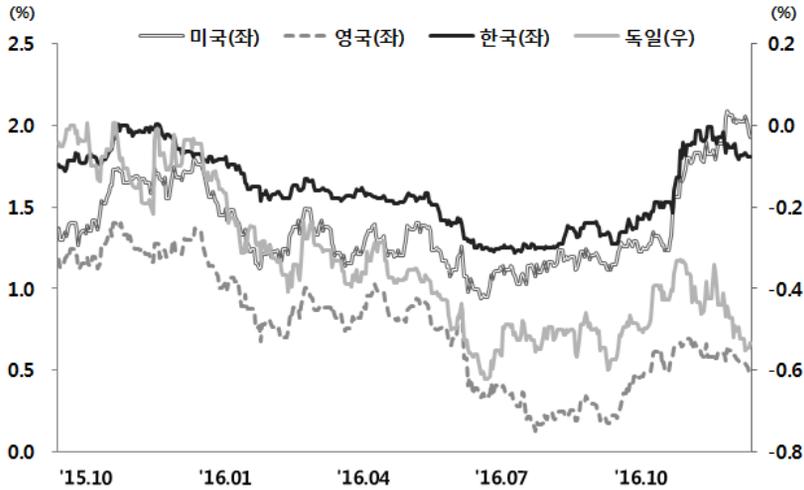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독일, 영국, 우리나라 금리가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임(〈그림 3〉 참고).
 - 하지만 12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됨.

54)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2.9%로 시장예상치 2.6%를 상회하였고, 영국도 0.5%로 예상치 0.3%를 상회함.

55) 3/4분기 GDP는 건설투자 호조 지속, 정부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0.7% 성장함.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6년 4/4분기 평균 1.99%로 전분기대비 32bp 상승함(〈표 33〉 참고).
 - 10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1.78%, 11월과 12월은 각각 2.02%, 2.16%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3bp 늘어나 평균 44bp임.

〈환율〉

- 2016년 4/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36.0원 상승한 평균 1,157.4원을 기록함(〈표 34〉 참고).
 - 10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⁵⁶⁾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⁵⁷⁾ 국내 기업리스크 부각⁵⁸⁾ 등의 영향으로 9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07.5원보다 상승한 1,125.3원을 기록함.
 - 1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금리 상승세, 국내 경제의 수출 위축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11월보다 36.3원 상승한 1,161.6원이었음.

56) 미국 10월 제조업지수는 9월 51.5에서 상승하여 51.9를 기록했으며, 경기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을 넘었고 시장예상치인 51.7을 상회함.

57)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에 SDR편입 이후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6.78위안(16.10/28일 기준)까지 상승함. 이는 201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임.

58) 삼성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2016. 10. 10)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함.

-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 테러에 따른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ECB의 양적완화 기간연장⁵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82.3원을 기록함.

〈표 34〉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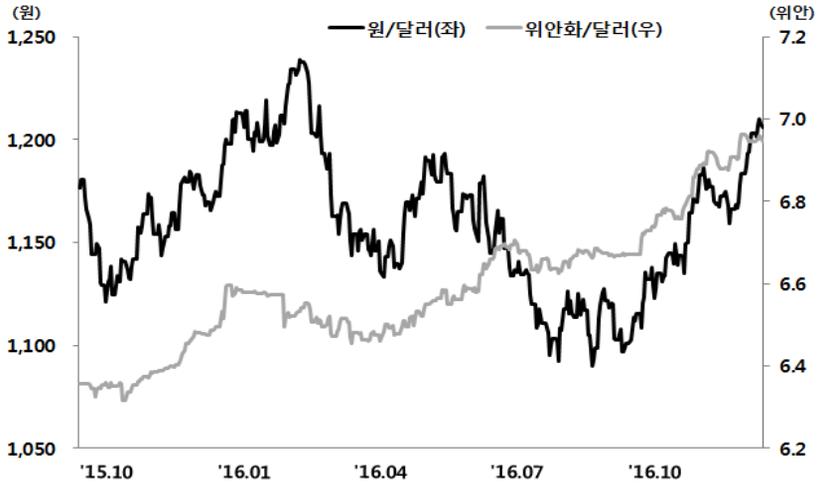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57.7	1,201.4	1,163.2	1,121.4	1,157.4	1,125.3	1,161.6	1,182.3
엔/달러	121.5	115.3	108.2	102.4	109.5	103.8	108.2	116.0
달러/유로	1.095	1.103	1.129	1.116	1.078	1.103	1.080	1.054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4/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166위안 상승하여 평균 6.833위안을 기록함.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인 12월 16일에 2008년 6월 이래 최고치인 달러당 6.962위안까지 급등함.
 - 최근 중국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며 위안화/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그림 4〉 참고).

59) ECB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기간을 '17. 3월에서 '17. 12월로 연장하고, 규모를 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축소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하락함(〈표 34〉 참고).
 - 10월 엔/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감소로 전월대비 하락한 104.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하드 브렉시트⁶⁰⁾ 가능성과 유럽 은행들의 부실 우려 등으로 하락하여 1.103 달러를 기록함.
 - 11월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한 103.8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80달러를 나타냄.
 - 1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일본 중앙은행의 장기국채 매입 확대⁶¹⁾로 상승하여 116.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ECB의 양적완화 기간연장으로 1.054로 전월보다 하락함.

60)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 받으며 대신 개별적으로 비유럽연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함.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일정부분 관세 혜택을 누리며 공동 시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의 선례가 있음.

61) 9월 장기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국채매입 규모를 기존의 총 3,000억 엔에서 3,200억 엔으로 확대함.

〈주가〉

■ 2016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026.89보다 하락한 평균 2,012.29임(〈그림 5〉참고).

- 10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지속⁶²⁾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 등의 영향으로 9월 평균주가지수 2,042.56보다 하락한 2036.03을 나타냄.
- 1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81.75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⁶³⁾ 미국 대선 결과, 국내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하락하였음.
- 1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21.67로 미국 정책금리 인상, 미국 다우지수 상승,⁶⁴⁾ 외국인 순매수⁶⁵⁾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62) 10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3,200억 원으로 9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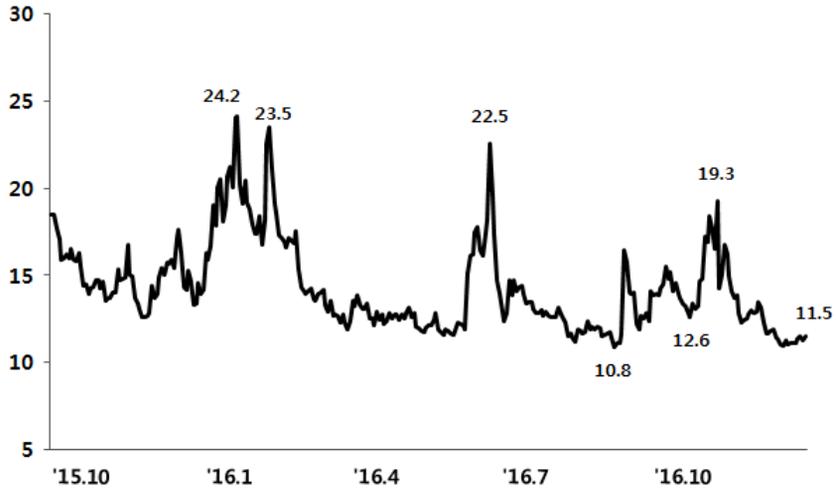
63)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 주식투자가 11월 순매도(4,600억 원)를 기록함.

64) 2016년 12월 20일 19,974.62로 최고치를 기록함.

65) 12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3,800억 원임.

- 2016년 4/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급상승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12월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6〉참고).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6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9,395.66으로 전분기 평균 17,962.42보다 상승함 (〈그림 7〉참고).
 - 미국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주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급등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비율 하락 우려로 약세를 보임.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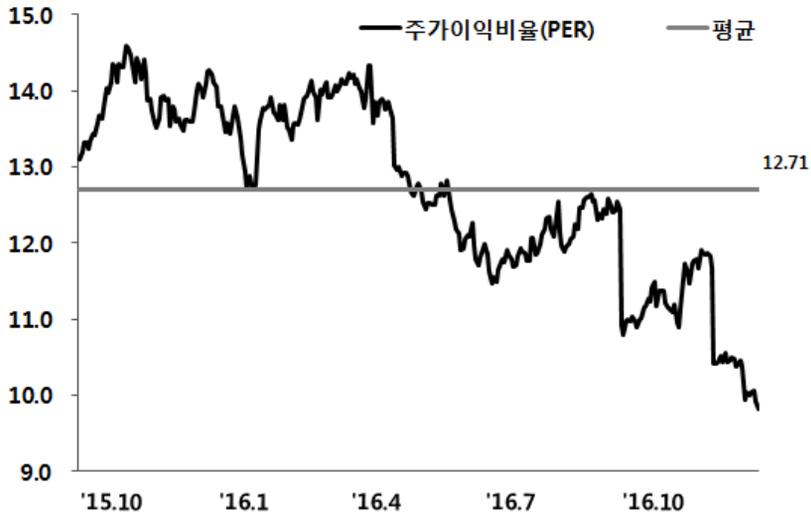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6년 4/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98과 0.81로 3/4분기 평균인 12.10과 0.91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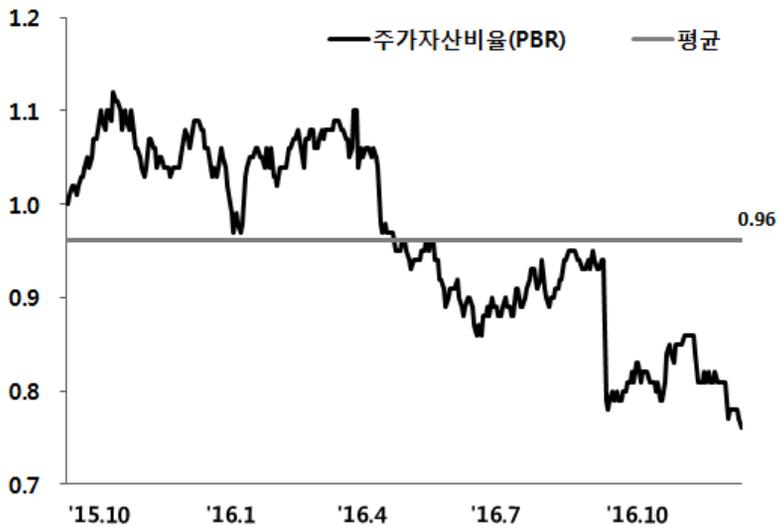
○ 보험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이익률(PER)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주가자산비율(PBR)은 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증가로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